

참교추 회원 소개

『은혜 나눔』

최병준 목사 | 제자교회(청주)



안녕하세요. 참교추 신입회원 최병준 목사입니다. 참교추와 함께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들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저의 지난 8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사역을 시작했으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저의 설교는 복음을 잘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설교의 많은 부분이 심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도하는,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며 명명하는 설교가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왜 나의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님의 소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과 <박순용 목사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교추 컨퍼런스>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책과 컨퍼런스의 강의를 제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포인 실타래와 같은 내 영혼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를 얻게 한 것입니다. 이후 저의 설교에도, 실천적인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타협할 수 없다는 것,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교회 안에서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맡으신 한 집사님께서 제가 증거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얻으신 것입니다.

집사님께서서는 복음에서 말하는 인간의 부패함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심히 낙심하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신앙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

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이라고 붙들었던 것은 큰 오해였음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저만 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찬송가 292장> 4절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참된 교회를 추구하며,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보다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기준 강도사 | 삼산중앙교회(해남)



충북 제천,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껌이 귀하던 시절, 교회에 가면 껌을 준다라는 이야기에 솔깃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션 스쿨이어서 내키지 않아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는 찬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다닌 고등학교 시절, 저는 친구의 강요에 못이겨서 성경교회 학생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은혜인 것은, 그 교회에서 나의 반쪽을 만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1남 1녀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직장 문제로 청주를 떠나 해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지금 섬기고 있는 삼산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신앙생활

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신앙의 동지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부모뻘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는 교회로 옮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소서 본문을 통해서 '영광스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하여서 같하고 메마른 영혼에 말씀이 들리자 기쁨이 샘 솟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하였고 성실히 섬겼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2005년에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등의 신앙고백서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었음에도 교리가 낯설고 익숙하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알고 있거나,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청교도와 개혁 교회의 좋은 선배들도 알게 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담임 목사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임자를 찾았으나, 시골 교회로 오고자 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당시 장로로 세워진 저에게 목회자로 섬길 것을 권면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20여 명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7~80대의 어르신들이 주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기 위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써 영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칼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점점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부를 많이 하려는 풍토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현대 목회자들은 이전 세대의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번역본과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풍성한 성경의 이해를 성도들에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을 통해 교회 안에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다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목회라고 하는 어떤 일 또는 직업을 갖고 있기에 그에 합당한 결과를 달성하려고 힘을 쏟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전한 동기가 점차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꿈꾸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뒤로 물러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세심하게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만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사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 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알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에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히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이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출발점을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핵심 목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보아야 할

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이 사역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의 결과를 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안타까운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역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맡기신 양무를 섬기고자 분초를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날마다 성화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원함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갖고자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많은 결함과 결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주여 진실로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음을 더욱더 경 nghiệm하게 됩니다.

月刊 참교추

2022년 5월호 통권 12호

News

<2022 정기세미나 안내>

- 주제 : 율법과 복음
- 날짜 : 5월 30일(월) - 6월 1일(수)
- 장소 : 제주 참교추 센터



<6월 정기모임 안내>

- 날짜 : 6월 20일(월)
- 장소 : 하늘영광교회
- 오전 대담 : 10장 <175-244p>



- 오후 책 나눔 : 2장 <93-137p>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

정종남 목사 | 하늘가족교회(금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13-15)

깨어진 계획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깨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깨진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그의 사역의 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힘을 다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했고(10절), 그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기도 하였지만(13절), 그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사회와 문화의 중심부였던 로마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계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 못했습니다. 다만 로마서라는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던 위대한 사도 역시 계획이 막히는 때가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계획과 뜻이 막히고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계획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계획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세운 계획이 좌절되고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아닙니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에 온 힘을 다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이 좌절되고 깨졌을 때, 낙심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명이요, 계획이 깨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도 사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만을 통하여 일하지시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 깨지고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나 계획이 깨어졌을 때나,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참된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로 갈 계획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바울은 이처럼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입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왜 그 순간에 '빛진 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동역자들의 상황, 어쩌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막힌 길'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이 비록 로마와 같이 세계 중심부는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어려워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로 갈 계획이 틀어졌을 때, 바울은 자신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차별 없이 오직 생명을 찾고 구하는 바울의 진실한 중심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을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이 생명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는 한 로마로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의 의미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모두에게 내가 빛진 자'라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로 여겼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빛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빛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의 영광을 알아,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비록 현재 세운 계획이 깨어진 것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서라도 말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 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곧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란 뜻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막힌 길'에 이른 지체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지체들은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뽕 뿔린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순조로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길이 틀린 길이나 목적지와 정반대로 나 있는 길이라면, 그러한 길을 시원하게 달린 들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신나게 달린 길만큼 되돌아가야 하는 수고만 늘어날 뿐입니다. 빠르고 순조롭게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가지 못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뻐했지만, 그것이 로마 교회뿐 아니라 오는 여러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보고 회심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막힐지언정,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미리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이루며 사는 자들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이라도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길,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 비록 길이 막힐 때나, 풀릴 때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생의 계획과 뜻이 깨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과 예배가 넘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루터의 구약 해석

그레엄 골즈워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우리는 구약의 본문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Christological interpretation) 방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쓰인 본래 의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원리들을 어떤 본문이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요술 열쇠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해석하려는 본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르게 이해하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루터의 다윗과 골리앗 본문 해석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구약 본문을 다루었는지를 통해서 바른 성경 해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루터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였을까요? 그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였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유대 백성에게는 좋은 보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무서운 적이 쓰러졌고, 따라서 그들은 구출된 것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며 그 승리를 기뻐하였다(삼상 18:6). 하나님의 복음이 이와 같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올려 퍼진 좋은 이야기이며 소식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워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로써 죄의 포로가 되어 사망의 고통을 향하며 사탄에게 억눌렸던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신 진정한 다윗 예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경 해석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행하신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 사역을 루터가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루터가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보고 나면, 다윗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얻은 대속적인 것이며, 그들은 단지 자기들을 위해 쟁취된 승리를 기뻐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본문 해석의 실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승리는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낸 명백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참 구원 사건을 미리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구원 사건이 분명한 하나의 역사적 상

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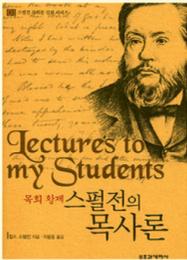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고백

451년 칼케돈에서 제4차 공의회가 열렸다. 그곳에 모인 대표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성자로서 고백한다. 그는 신성과 인성에 완전하시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인간이다. 혼란과 변화와 분열과 분리가 없는 두 개의 본질로 존재하신다. 연합의 사건으로 인하여, 본질들 사이의 구별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으며, 각 본질들의 특성은 계속 보존되었고, 한데 합하여 한 위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고백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연합된 인격이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인간이며 하

추천도서



스필전의 목사론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은 스피전이 자신이 설립한 목회자 대학에서 금요일 오후마다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했던 내용들이다. 스피전은 목회 초기부터 훌륭한 목회자 양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 스피전은 불과 21세에 메디스트라는 젊은이에게 일주일에 한번 목회 지도를 해 준 것을 시작으로, 목회자 대학을 설립하여 후배 목회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스필전이 이 책 속에 있는 강의를 했을 때의 나이는 놀랍게도 34세였다. 우리는 얼핏 '34세의 새파란 목사가 목회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34세의 스피전은 이미 목회 경력 17년의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15년 이상 당대 최고의 대형 교회 목회자로서의 15년간의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 브루스 셸리 / CH북스

나님이시다" 등으로 말이다.

교회는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였으며,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항하여서는 진정한 인간 이심을 확증하였다. '유티케스'에 대항하여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데 연합하였을 때 무언가 또 다른 제3의 본질로 변화해 버리지 않았음을 고백하였고, '네스토리우스'에 대항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분리, 분열되지 않으신 한 위격이심을 말하였다.

물론 과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속에서 연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칼케돈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논리나 언어의 한계에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케돈 신경의 중요성은 진리의 경계를 확정했다는 데 있다. 계시가 증거하는 바 안에서 울타리를 세우고, "바로 이 범위 안에 신인의 신비가 내재하고 있다."고 선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찰스 스피전 / 부흥과 개혁사

다양하고 풍부한 목회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담긴 스피전의 목회론 강의는 목회 경험 없는 학자의 박제된 탁상강의가 아니라 산전수전 풍부한 목회 경험을 다 겪은, 자신의 목회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생동감 있는 현장 강의다.

우리는 이 책 속에서 목회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일러 주는 목회자의 부모와 같은 목회자의 목회자, 스피전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외침을 들어보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강단을 메우느니 차라리 강단을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